

뮌헨 공대는 독일의 공과대학 연합인 TU9에 속해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독일을 대표하는 대학 중 하나이다. 뮌헨 공대를 파견 대학으로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번째는 뮌헨 공대가 좋은 학교이기 때문이었고, 두번째는 뮌헨이라는 도시 때문이었다. 교환학생을 지원할 당시, 나는 파견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학교 선택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먼저 지원 가능 학교 리스트를 보기 전부터 지역에 따른 우선순위를 생각해 두었다. 지역 선정에는 여러 기준이 있었는데, 그 중 필수적이었던 조건은 영어가 통해야 한다는 것과 여행을 다니기 용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람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한 학기 동안 뮌헨에서 지내는 동안 관공서, 마트 등 의사소통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는 영어가 통하였다. 나와 같이 독일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교환 학생을 가게 되는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여도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독일어를 습득할 때 쯤이면 교환 학기가 마무리 되어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건 교환 파견 국가의 언어를 미리 공부하고 가는 것이다. 독일어를 조금이라도 배운 상태에서 파견을 간다면 독일어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독일 뿐만 아니라 모든 비 영어권 국가에 해당하는 말이겠지만, 파견 이 전 독일어 (혹은 다른 파견 국가의 언어) 실력이 0이라면 자연스럽게 한 학기 동안 영어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에, 영어 실력은 늘지 않더라도 독일어 실력은 크게 늘기 힘들다. 앞서 영어가 잘 통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점은, 본인이 독일어를 아무리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연습하고 싶어도, 대부분 대화 상대는 동양인에게 독일어가 아닌 영어를 먼저 사용한다. 따라서 독일어를 연습하고 싶다면 언어 교환을 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 뮌헨 공대의 경우 교내에 tandem 프로그램이 있어 한국어-독일어 언어 교환을 신청할 수 있고, 언어 교환을 할 정도의 독일어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 매주 수요일 main campus의 stucafe에서 열리는 language café에 참여하면 된다. 또한, 전기정보공학부 학생의 경우 뮌헨 공대의 전기과에서 주관하는 1대1 교환 멘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나의 교환 라이프를 도와주는 전기과 학부생 친구 한 명을 만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는 뮌헨 공대 전기과 학부생의 경우 대부분 외국 학생을 만나고 싶어하는 학생이기에 쉽게 친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환 파견 학교로 뮌헨 공대가 가지는 장점 두번째는 바로 여행을 다니기 용이한 지리적 위치이다. 교환 학생 제도란 새로운 환경에서 자립하는 힘을 기르고, 우리와는 다른 연구 문화와 수학 환경을 가진 곳에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일 것이다. 나는 이러한 교환 학생의 의무가 순전히 외국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경험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최대한 많이 여행을 다니려고 노력하였다. 독일 남부에 위치한 뮌헨은 서유럽과 동유럽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 대부분의 도시를 짧은 시간 내로 갈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지리적인 이점보다 더 큰 장점은 바로 뮌헨이 flixbus 유럽 노선의 중심이라는 점이다. Flixbus는 유럽 도시들을 연결해주는 저가 고속버스 회사인데, 이 flixbus의 창업자가 뮌헨 공대 출신이며, 뮌헨은 지리적인 이유때문인지 동유럽과 서유럽, 독일 북부 등에 모두 연결되는 노선을 가지고있다. 하지만 서유럽이나 이탈리아 남부 등은 (노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버스로 이동하기에는 너무 멀기에 비행기를 이용하는게 일반적인데, 가난한 교환학생들은 보통 저가항공사인 Vueling, Ryan Air 등을 사용한다. 특히, Ryan air의 경우 교환학생에게 15% 할인 및 수하물 무료 추가를 해주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정말 엄청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나의 경우 뮌헨-로마 티켓을 8,9유로, 뮌헨-런던 티켓을 12.9유로에 (모두 수하물 포함)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가격의 티켓이 희귀한 것도 아니고, 약 3주 전에만 구매를 한다면 거의 모든 노선이 20유로 밑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약 반년간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나를 더 잘 알게 되었다. 뻔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교환을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을 하거나 학위를 따러 간 것이 아닌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 혼자, 처음 가보는 대륙에서, 아는 사람 없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며 지낸다는 경험은 분명 평생 다시는 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국제협력본부 및 공과대학 대외협력실 담당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교환 프로그램들이 취소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